

월/요/광/장

최병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주)는 지난 18일 'PD수첩' 조봉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준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를 마치 사실인양 단정 지어 MBC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을 정면 돌파하고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검찰 발표 이틀만 이통관 청와대 대변인은 PD수첩을 음주운전에 비유하면서 "외국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정치작업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MBC 대주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 교체에 앞둔 포석이라는 풀이가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의 임기는 3년이고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이들이 MBC 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검찰의 기소는 소정의 재판을 거쳐서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된다.

언론사회의 중요성은 정부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자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사회의 본질적 측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명예훼손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언론보도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하지만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보도의 경우는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판례들을 내놓았다.

위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함을 밝혔다. 영국의 경우에는 1993년 의회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한 만큼 법원이 가릴 것이다. 그러나 피다수첩 수사 결과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서 처음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담당 부장검사 표창을 냈고, 형사6부로 수사팀을 바꿔가면서 수사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 과정의 일부 실수를 의도적인 왜곡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작가의 이메일을 짜깁기해 공개했다. 이런 움직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물론 현 정부의 비판언론 재갈 물러기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대 못미치는 광주시 야간경관 조성사업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이다. 야간경관 개선을 명목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진원지다. 한쪽에서는 수역원의 헬세를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꾸로 야간경관을 해치는 못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청사(4억원), 조선대 본관(5억원) 등 올해에만 공공시설물 8곳에 모두 60억5천만 원을 들여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이에 반해 모델이나 유흥업소 등 민간 건축물은 시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비롯기라도 하듯 무질서 그 자체다. 건축주나 업자들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렬한 원색과 내온사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의 안일한 행정이 주원인이다. 광주의 야경을 어지럽히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팔장만 끼고 있는 탓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야간경관 활성화 조례'를 이유로 민간 건축주들의 자율적인 참여만 기다릴 뿐이다.

그러잖아도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불경기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점에서 굵직한 시선을 받고 있다. 시는 민간건축물들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야간조성사업을 몇몇 공공시설물의 외관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고용 대란 막지 못하면 경제회복 어렵다

올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 사정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3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25만 명을 넘는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도 지갑을 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반기의 소비 전망에 대해 64%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졸일 것'이라는 응답도 24%로 조사돼 '늘릴 것'(12%)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가 많았다.

국내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3분기에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어 고용 감소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시장 개선에 뒀다. 실업 대책 사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경기 회복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보전과 창출 노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 내수 악화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고 민간 부문의 호응이 없으면 경기부양정책도 효과를 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재업계의 가계는 하반기에

기고

김승일



4월 구자범 취임연주회에서 세상을 만나 '생동'하던 광주 시향의 6월 연주회에서는 더욱더 깊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팎한 하모니였다. 그리고 단원들 각자도 완벽한 하모니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한 단계 더 높은 하모니의 경지를 찾아 몰두해 가는 모습은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이게 했다.

김동으로 박수와 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향은 7월에 시작장에인을 위해서 '영화 속의 클래식'이라는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한 모양이다. 시작장에인들에게 영화의 세계를 음악으로 보여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사실 시향은 시립이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찾아가는 연주회'라는 것을 해 왔지만 교도소나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일은 이제 구단장에 의해 처음 실현되는 일이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향의 '베토벤'을 듣고 싶다

관 '는 것'이었다. 광주시향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올라 안정된 궤도를 얻어가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다. 또 그러한 성장과 변화에 단원들도 가슴 뿌듯해 하는 모습도 엿보였으니 이는 광주시향으로서의 엄청난 변화이고 성장 동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구 지휘자는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서 열리는 '교향악 축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자는 교향악 축제에 경연대회나 발표회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없다. 광주시향이 당연히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76년 광주시향의 첫 연주회의 모습과 그 뒤 30여 년 우여곡절의 역사를 날 낚아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이런 광주시향의 모습이 금식지감(寸寸之感)으로 다가와 잠시 문물해 지기도 했다.

말하자면 '교향악 축제'는 우리의 현실이고 지난 2년간 참가하지 못했던 광주시향으로서의 내년에는 꼭 참가해 시향의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리야 하며 그래서 광주시향을 들러 전국에서 광주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연주회 감동의 절정은 아마 '4개의 마지막 노래'가 아니었을까. R. 슈트라우스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번민하고 사색하면서 영혼의 방황을 토로하는 듯한 소프라노 엘레노레 마케르의 노래는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필자에게도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명상이며 사색이었고 민민의 응얼거림, 독백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나는 구자범의 광주시향으로부터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듣고 싶다. 컬러풀한 교향집의 HD 화면에 감동받다 보면 또 어느새 흑백의 단아함도 그리워지게 되는 것일까.

말하자면 발성이나 벨칸토니 목소리나 호흡이나 하는 그런 차원의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온몸으로 모색하고 번민하는 철학의 세계 같은 것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가사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 호소력에 압도되었고 결국은

40~60인조 정도의 2관 편성으로 연주하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을 구자범은 어떻게 요리에 상을 차릴까 궁금해지는 것이다.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서곡과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한 곡을 연주하는 전형적인 고전주의 시대의 연주를 들어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쯤이 될까. 기다려진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명예교수>

기고

유광중



우리나라가 갈수록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무더위와 길어진 낮 시간으로 지친 사람들은 그 어느 계절보다 여름철에는 게으른 방안통수(전라도 방언, 집안에 들어앉아 밖의 활동은 하지 않고 푹만 재고 있는 사람)로 쉽게 변해 시간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죽이면서(killing time)"보낸다.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관용어구인 이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낮 시간이 긴 여름

미국 스필버그 감독 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이 현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한 것과 같고 영국 여왕이 세익스피어를 영국과 바꾸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세계적 디자인인 이삼봉씨가 한글도언어 디자인된 작품으로 패션쇼 무대에서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의 문화적 창의성은 언제든지 새로운 상품이 되어 나타날 고부가가치 상품이며 경

문화충전으로 행복지수 높이자

에는 꼭 문화활동에 시간을 투자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빛고을인 우리 시가 광산업에 주력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빛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시이미지를 고착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더위를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문화활동일지도 모른다. 습소리조차 조심하게 되는 잠입한 연주회라지 눈도 깜빡일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도 무용 공연을 보거나 또는 전시장에 들어서서 때부터 눈길을 확 잡아끄는 작품들을 볼 때 가슴 속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느껴질 것이다. 바로 문화로 피서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감성 순화가 문화활동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본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문화를 통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바랄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다. 이는 시민들이 문화에 동화되어 느껴지는 행복지수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 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답게 문화활동을 위해 접근이 편리한 도심 속에, 그것도 푸른 자연이 있는 공원 안에 위치한 많은 문화공간이 우리의 웰빙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귀를 사로잡는 음악, 눈을 행복하게 하는 전시회, 온 정신을 뽐낼 수 있을 정도의 흥겨운 공연을 보고 난 후 땀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문화인 것이다.

문화로 시원해지고 문화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시의 문화공포도를 위해, 올 여름에는 더욱더 공들여 문화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싶다. 본격적으로 무더워질 한여름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 속으로, 문화충전으로 다져진 행복 속으로 바빠 움직이기를 희망한다.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케이크용 초, 환경 위해 친환경 재료 사용 했으면

기념일 날 케이크를 사다 먹는 일이 적잖다. 보통 케이크에 초를 꽂아 놓고 불을 붙인 후 노래부르고 촛불을 끄는 게 일반적인 순서다. 하지만, 초의 크기를 다 태우지 못한 채 끄는 게 일반적이다. 촛불을 붙인 후 촛대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길어봐야 3분, 짧게는 1,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만, 이렇게 짧게 태운 후 곧바로 불이 꺼진 초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개의 제과점 업소와 그곳에서 팔려나가는 케이크 촛불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따라서 케이크에 불이 따라가는 촛불은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 만들고, 불이 타는 양의 성분만 아주 작게 만들어 초의 뒷부분에 위에 올려놓는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하면 촛불을 썩여 축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쓰레기가 버려져 결국에는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썩은통

유원지에 양심 버리는 관광객 농촌 인식도 잃는다

우리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좁은 저수지가 있는데 그날 중년의 남녀 3쌍이 차에서 내렸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데로 와서는 "저수지에 낚시 왔는데 나중에 여기 나무 아래서 잡은 고기로 매운탕 좀 끓여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선뜻 그러라고 해줬다. 그러면서 후시나 삶아 갖 때는 반드시 쓰레기통을 주의해서 가져가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음식 쓰레기

는 버리고 가도 괜찮지만 그 외 쓰레기들은 되가져가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다. 그러나 일을 다 마친 후 옆 정자나무 쪽에 와보니 소주, 맥주병 그리고 그들이 밤곰 매운탕을 끓여먹으며 사용한 일회용 그릇들과 신다만 남은 운동화까지 버려놓고 간 것이었다. 이런 함심하고 아비한 사람들 때문에 농촌 인심이 험악해진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중언·곡성군 석곡면

無等鼓

1989년 5월 28일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전국 교사 200여명이 결성식을 가졌다. 경찰의 원천봉쇄를 따돌리고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직원도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 인간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생 순간이다. 초대 위원장은 윤영구 당시 광주 전남체고 교사(2005년 작고)가 맡았다.

하지만 정치 투쟁에 과도하게 참여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고립되기 시작

'참교육'을 표방한 전교조는 교육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소속 교사 1천500여 명이 해고된 교단을 떠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거둬들 탄압에 굴하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 정부때인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를 이뤄냈다.

이후 '얼린 교육'을 강조하며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무발 규제와 체벌, 친지 문제 등을 공론화시켰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덕분에 참여정부 초기 조합원수는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후 '얼린 교육'을 강조하며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무발 규제와 체벌, 친지 문제 등을 공론화시켰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덕분에 참여정부 초기 조합원수는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전교조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